

✦ 우리들의 정성 【2월 20일(월) ~ 2월 26일(주일)】

사순 제 1주일 주일헌금		3,382,000원		특별헌금		1,494,100원		주일미사 참여자수		780명	
교 무 금 5,000,000원	강경옥	안 젤 라	강명자	제노베파	강장희	요 한	강형숙	유스띠나			
	구희산	요 한	김계옥	벨라델타	김관수	토 마 스	김미선	마 리 아			
	김선중	데 레 사	김성옥	안또니오	김옥동	사도요한	김윤정	엘리사벳			
	김재삼	스테파노	김정식	시 문	김정훈	안드레아	김창호	마 리 노			
	김춘옥	막달레나	김형자	레 지 나	박덕수	요 셉	박상곤	레오폴도			
	박천경	프란치스코	손지영	에 스 텔	송재호	베 드 로	신승철	바 오 로			
	신진우	모 세	신현성	세바스티아노	안숙자	모 니 카	오은영	마리아악달레나			
	유위규	안 나	윤석준	바실리오	윤영찬	스테파노	이동호	다 니 엘			
	이미경	소 피 아	이병욱	레 오	이봉남	아오스딩	이선희	글 라 라			
	이순금	안 나	이유미	울리안나	이윤영	루 치 아	이은미	모 니 카			
	이종화	요 셉	이준수	프란치스코	이학구	빈첸시오	이해동	요 셉			
	이현기	마 티 아	장순덕	마 리 아	장진수	베 드 로	정광호	마 태 오			
	정수옥	안드레아	정재근		정재승	프란치스코	정현주	요세피나			
	조성태	라우렌시오	조태봉	라우렌시오	차수진	울리아나	최부자	요안나프란치스카			
	최정자	베로니카	한상범	다 니 엘	허 욱	스테파노	황승규	시 메 온			
감 사 헌 금	김선중	데 레 사	100,000	박덕수	요 셉	100,000	김춘옥	막달레나	200,000		
성소후원금	손옥란	미카엘라	20,000	이수경	마 리 아	50,000	김성옥	안또니오	30,000		
제대꽃	오영미	베르나델타	40,000	전병숙	베로니카	10,000	이선희	글 라 라	20,000		
토지·건축 헌금	송영인	안 젤 라	50,000	송해인	클라우디아	50,000	이미혜	루 시 아	200,000		
	이현기	마 티 아	50,000								

본당 부채 현황(교구차입금·토지)	금주 토지·건축 봉헌금	본당 부채 적립금
1,200,000,000원	350,000원	12,445,000원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1-858011 전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책정자명과 세례명 꼭 기입)
------	---

♡ 봉헌해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간지 교리 (출처 :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신자 재교육 교리상식1-I 미사전례》)

◆ 성체 분배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여자는 할 수 없나요?

○ 정기적인 성체 분배자는 주교, 사제, 부제입니다(교회법 제910조 1항). 그러나 지금은 수도자와 평신도도 성체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비정규 성체 분배자'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소속 교구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봉사자들입니다. '비정규'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는 이들의 성체 분배권이 '보조적'이고 '예외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제와 부제는 영성체를 청하는 교우들에게 성체를 분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성체 신비 공경에 대한 훈령 「성체의 신비」, 31항 참조). 사제와 부제만으로 성체 분배를 하기 곤란한 경우와 미사 중에 신자가 많을 경우 등 사목적 필요에 따라 비정규 성체 분배자들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정한 성체 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종직, 독서직을 받은 자. 2) 수사, 수녀. 3) 40세 이상의 남녀 평신도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자 평신도뿐 아니라 여자 평신도도 성체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공적인 자리를 꺼려하는 독특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성 성체 분배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입니다. 성체를 영할 때 성체 분배자를 가려서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권한에 관한 중요한 몇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사 중에만 사제를 도와 성체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2) 미사 밖(예, 공소, 병원 등)에서 성체 분배가 필요할 때에는 따로 교구 직권자로부터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소속 교구를 벗어났을 때에는 해당 주교로부터 다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4) 품위에 어긋나는 경우 사목자는 성체 분배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1998년 춘계 정기 총회 제정).

평신도 성체 분배자는 교회가 인정한 복장을 갖추고 제대에 올라가야 합니다. 또 그들은 미사 공동 집전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성체를 모실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내외적 규정을 잘 지켜야만 분배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